

〈예·적금 상품 금리비교〉

	금융회사	상품명	세전이자율
3년만기 정기예금	제주은행	제주Dream정기예금	2.65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2.60
	케이뱅크	코드K정기예금	2.60
3년만기 적금	케이뱅크	코드K자유적금	3.50
	하나은행	주거레하나 월복리적금	3.40
	수협은행	Sh해양플라스틱Zero적금	3.40

# 금리, 오늘이 가장 높다 예·적금 2~3년이 유리

기준금리 내년 2.25%로 인하전망 5대 은행 6개월 예금 평균 2.96% 장기 예·적금상품 금리는 더 낮아 단기보다 2~3년 장기 가입 유리

지난 2월 기준금리(연 2.75%) 인하 이후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하락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내년 2.2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만기가 2~3년으로 긴 예·적금 상품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달 실제 취급한 6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는 평균 연 2.96%로 나타났다. 36개월(3년) 정기예금 금리(연 2.94%)보다 0.02%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적금 상품도 만기가 짧은 상품의 금리가 높다. 이들 은행의 1년 만기 적금 상품의 금리는 연 2.81%로 3년 만기 적금 상품(연 2.66%)보다 0.15%p 높다. 통상 은행들이 단기보다 장기 예·적금 상품에 가입했을 때 금리를 높게 지급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은행들이 2~3년 장기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금리 인하이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3년 만기 예금 금리 2.94%, 적금 금리 2.66%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기준금리가 실제로 2.25%까지 떨어지면 상당히 높은 금리가 될 수 있다. 은행들이 장기 예·적금 상품을 늘리면 2~3년 뒤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만기가 짧은 상품의 금리

를 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금리인하가 안 정적인 투자처로 은행의 예·적금을 선택할 예정이라면 만기가 긴 상품이 유리하다고 분석한다.

현재 3년 만기 기준 예금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제주드림(Dream) 정기예금으로 세전 이자율이 연 2.65%(세후 연 2.24%)다.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과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도 각각 연 2.60%(세후 연 2.20%)의 금리를 제공한다.

예컨대 1000만원의 예금상품을 3년 만기로 가입한 경우 제주은행은 세후 67만2000원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66만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

적금 금리는 케이뱅크의 코드K 자유적금의 금리가 세전 연 3.50%(세후 2.96%)로 가장 높다. 하나은행의 주거레하나 월복리적금과 수협은행의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적금의 금리도 각각 세전 연 3.40%(세후 연 2.88%)의 금리를 제공해 뒤를 이었다.

케이뱅크의 코드K자유적금과 하나은행의 주거레 하나 월 복리 적금은 자유적립식이다. 수협은행은 정액 적립식으로 월 10만원을 3년간 적립 시 15만 4845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이전에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장기간 예·적금 상품 금리를 높여 자금을 마련했다”면서도 “금리인하기에는 장기간 고정된 이율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6개월~1년 만기의 단기상품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우리은행, 인사카드서 학력·지역 등 삭제

업무능력과 연관성 적은 정보 제외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 정착 기대

우리은행은 성과 중심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 인사카드에서 학력, 병역, 출신 지역 등 업무능력과 연관성이 적은 인사 정보를 삭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 인사카드는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업무경력, 자격증, 시상 내역 등 업무능력 파악을 위한 정보 외에도 학력, 병역, 출신 지역 등 선입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관행적 정보를 전격 삭제해, 실력으로 승부하는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정진완 은행장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

한편, 우리은행은 올해 초부터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별로 연수 및 자격증 목표를 설정하는 '자기개발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에게는 시상 및 포상 등 인사상 특별우대를 부여해 자기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도 '내리막길'

다올저축은행 금리 2.8% '최고' 은행 금리인하·대출축소 등 영향

조건 없이 연 3%대 금리를 지급하던 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가 모두 2%대로 내려 앉았다. 저축은행 파킹통장은 은행 정기예금상품 수준의 금리혜택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금리 노마드족' 사이에 인기였다.

1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 79곳 중 가장 높은 파킹통장 기본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다올저축은행이다. 'Fi 저축예금'에 연 2.8% 금리를 적용했다. 해당 상품은 지난 2022년 4분기에 출시했다. 당시 연 3.20% 금리를 적용했지만 꾸준히 하향 조정했다.

업계에서 수신금리가 2번째로 높은 상품은 애뮤저축은행의 '플러스자유예금'이다. 연 2.60% 금리를 지급한다. 출시 당시와 비교하면 연 1.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어 SBI저축은행의 '사이다입출금통장'은 지난해 연 3%대 금리를 적용했지만 이달 연 2.25%까지 떨어졌다.

저축은행 파킹통장은 수시입출금통장의 일종이다. 유동성과 고금리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만큼 저축은행권이 별도의 마케팅을 강화하지 않았지



Chat GPT가 생성한 '통장 금리가 낮아지는 모습' 이미지.

만 입소문만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한동안 파킹통장 금리는 내리막길을 걸을 전망이다. 주요 조달수단도 아닌 데다 은행권이 수신금리를 낮추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줄이겠다는 기조가 확산하면서다. 저축은행은 운용자금의 90% 이상을 정기예금으로 조달한다. 같은 이자를 주더라도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정기예금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전반적인 대출 규모가 쪼그라든 것도 영향을 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저축은행의 여신잔액은 96조 7312억원이다. 지난해 9월 월간 여신잔액이 4964억원 증가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 2022년 11월(116조 2238억원)을 시작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도 저축은행권에서는 파킹통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권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저축은행간 마케팅 경쟁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은행권보다 높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기준 우대금리 포함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은 우리은행의 '우월한 월급 통장'이다. 최대 연 3.1% 금리를 준다. 반면 저축은행권에서는 OK저축은행 'OK짠테크통장Ⅱ'이 최대 연 7%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애뮤저축은행의 '머니모으기' 통장은 최대 연 5% 금리를 지급한다. 우대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주 최초 설정한 예치금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해야 한다. 한 주라도 예치에 실패하면 우대금리(연 2%)를 받을 수 없다. 이어 다올저축은행의 'Fi 싹싹돈통장'은 최대 연 3.30% 금리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해당 금리를 적용하는 예치 한도는 100만원에 그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파킹통장은 신규 회원을 유입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다. 당초 까다로운 우대조건을 내걸지 않으면 고금리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삼성물산, 차세대 주거플랫폼 '홈닉' 타 브랜드로 확대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에 도입 개방형 홈플랫폼 생태계 본격 확장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의 차세대 주거플랫폼 '홈닉'이 다른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홈플랫폼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삼성물산은 오는 7월 입주 예정인 HS화성의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에 홈닉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홈닉이 보유한 홈IoT, 커뮤니티 시설 예약, 차량관리, 디지털 관리사무소, 생활 서비스 등 레미안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입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 홈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시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입주민



삼성물산 홈플랫폼 홈닉. /삼성물산

들은 홈닉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스마트 주거생활을 경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홈닉 앱 하나로 세대 내 홈IoT 기기 제어는 물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예약, 차량관리, 디지털 관리사무소 서비스 이용, 공동구매, 소모임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 연계까지 가능하다.

삼성물산 H&B플랫폼사업팀장 지소영 상무는 “개방형 플랫폼인 홈닉은 앞으로 레미안을 넘어 다양한 건설사 및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 홈 생태계를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주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SK에코플랜드, 반도체·AI 스타트업 기술 발굴·육성

테크 오픈 컬래버레이션 공모전 창원원·무역협 등 15곳 공동주최

SK에코플랜드가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업 혁신기술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테크 오픈 컬래버레이션(Tech Open Collaboration)'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SK에코플랜드가 반도체·AI 분야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개방형 기술혁신(오픈 이노베

이션) 프로그램이다. 우수한 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혁신기술 공동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K에코플랜드가 주관하며 창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무역협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카이스트, 한남대학교, SK증권, 한국과학기술지주 등 공공·연구·투자기관 15곳도 공동주최를 통해 힘을 모은다.

공모전 모집 분야는 ▲반도체 EPC

▲반도체 공정 ▲반도체 용수 ▲반도체 부산물 ▲로봇/AI ▲수처리/소각/탄소저감 ▲해양 및 해상풍력 ▲공동주택 친환경/에너지 등 총 8개다. 모집 분야 기술 및 솔루션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스타트업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서류 접수는 다음달 9일까지 SK에코플랜드 홈페이지 팝업 배너를 통해 연결되는 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안상미 기자